

# 영주 세계 '콩' 과학관 세 명의 안동권문의 학자들

### 민족의 연원인 작물, 신에 바치는 豆(두) 발효(醱酵)문화의 정수, 된장과 신비한 효능 豆乳(두유) 그 신박한 아이디어 찬란한 진로



3만평의 부지에 연면적 1000평의 전시관과 체험관이 있다. 진정한 세계를 표방한 과학관이라면 연구소가 있어야 할 것이다. 옆에 영주 특산물 판매소가 있다. (사진 권오철)

세계콩과학관은 2015년 개관하여 '한국콩역사'를 정리하는 전시 및 체험관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콩은 한류 음식의 상징적인 존재이고 콩은 '豆(두)'라는 동문자(漢字)로 표기되지만, 豆(두)는 신에게 올리는 제기(祭器)의 모양이고, 또 태(太), 흔히 콩테라고 하니 이는 매우 크고 중요하다는 것이고, 叔(숙)은 아저씨 숙이나 아저씨가 콩을 쪄는 모습이니 콩 숙(菽)이고 흔히 숙맥(菽麥) 즉 콩과 보리도 분간 못하는 어리석은 이를 숙맥이라 한다.

콩은 이 코리아를 존재하게 한 장본인 곡물이다. 콩이 코리아의 주 강역인 만주, 연해주, 코리아반도 북부 위주로 그 원산지라는 것이 정설이니 이는 우연이 아니다.

과학관이 있게 한 권신환 박사와 권태완 박사 외에도 콩 육종분야의 거두 흥은희 박사와 재배와 연구분야의 일인자 권순영 박사가 그 뒤를 잇고 있다. 이제 우리와 약용식품 분야에서 선구자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된다.

영주콩과학관이 쓰리권(三權氏)이 있다. 권신환 박사(權臣漢 1930-)는 코리아가 콩의 원산지라는 것을 밝혀내고 국제적으로 인정 받은 것이다. 또 권태완(權泰完 1932-2017)는 사제와 책을 기증한 공박사로 이 과학관 설립의 핵심적 역할을 하였다. 그리고 권순영(1948-)박사는 공박사로 아포칸에 십수년간 엄청난 콩농장을 개설하고 양귀비밭을 갈아엎고 콩을 재배하도록 하였다.



본 과학관이 있게 한 장본인들, 코리아 원조라고 밝힌 권신환 박사 식품연구와 연구원의 태두 권태완 박사의 연구와 기증 기업인이며 두유의 상징 제품화의 정식품 정재원 회장.

육류에 미치지 못하고 여러 가지 독소가 존재하는 콩은 작물로서 단백질, 지방 공급원으로서 최고이다.

코리아의 대표 음식이 김치. 된장이라면 이것은 다 발효 음식이다. 발효는 모든 독소를 중화시키고 제3의 물질로 만들어 영양소와 흡수력, 맛을 높인 것이다. 고추가 근세에 들어와서 고추장이 나왔다 하지만 고초(苦椒)라는 북방 식물의 존재가 있었다는 견해도 있다.

콩에 독소가 있음은 어느 종자나 다 가지고 있다. 다만 일년생 풀에는 더욱 심하다. 야생종의 것을 개량하고 또 그것을 발효하는 기법이 생기면서 콩이 떠오르는 식품이 되고, 이 코리아인 민족의 절대적 유지와 발전에 근간이 된 것이다.

이 영주의 작은(?) 전시관이 세 명의 안동권문의 학자들에 의해 기초가 세워진 것은 우연이 아니다. 청국장이라고 하고 말고기와 콩을 안장 밑에 넣고 발효시키고 이를 식량으로 하여 하루 몇백 리를 달려 정복지를 늘린 몽골 기병과 여진군나라, 청나라 병사들이 다 코리아인의 일원이라는 것이 그런 이유이다.

청국장의 청나라의 선조가 바로 권행 시조님의 아들이라는 설도 유력한 만큼 깊이 상가하여할 일이다. 이름 그대로 세계를 망라하는 콩의 메카(Mecca of world soy science food, variety and cultivation, 全球大豆聖地)가 되도록 국가적 차원의 지속적 지원이 필요하다.

글: 권오철 기자

## 현조(賢祖) 문집 봉람(奉覽) <30>



권오철 편집위원장

〈포헌집〉은 수직(壽職)으로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를 받고 이조판서(吏曹判書)에 증직된 권덕수(權德秀, 1672~1759) 공의 시문집(詩文集)으로 5권3책이다.

공은 안동권씨 26세(世)로 북야공파이다. 자(字)는 윤재(潤哉), 호(號)는 포헌(逋軒)·포촌(逋村)·담옹(淡翁)·토실거사(土室居士)이다. 영주(榮州) 풍기읍(豊基邑) 우곡리(愚谷里) 모친의 외가에서 태어났다. 공의 부친은 증직 이조참의(吏曹參議) 권진원(權震元, 1625~1697)이며 모친은 증숙부인(贈淑夫人) 신성김씨(宣城金氏)로 통덕랑(通德郎) 김종발(金宗勃)의 따님이다.

공은 하당(荷塘) 권두인(權斗寅, 1643~1719)의 문인으로 밀암(密庵) 이재(李裁, 1657~1730), 병곡(屏谷) 권구(權榘, 1672~1749), 우계(雨溪) 김명석(金命錫, 1675~1762) 등과 교유하였다.

1690년 19세 때 향시(鄕試)에 합격하고 이어 문과(文科)에 응시하려는데 죽령 구소(鳩巢) 권성구(權聖矩, 1642~1708)가 시관(試官)이라는 것을 알고 포기하였다. 1709년 38세 때 안동 청성(靑城)으로 이거하여 5대조인 송암(松巖) 권호문(權好文, 1532~1587)이 세운 구하대(鶴下臺) 곁에 집을 짓고, 마을 이름을 송(宋)나라 때의 은사(隱士)인 임포(林逋)의 지취를 따라 포촌(逋村)이라 불렀다. 1717년 46세에 안동 성산(星山)으로 이거하였으며 이곳에서 〈몽구(蒙求)〉를 지었다. 1728년 57세 때 이인좌의 난에 안무사(安撫使) 박사수(朴師洙), 호소사(號召使) 조덕린(趙德鄰) 등과 창의(倡義)하였다. 그 뒤 함벽당(涵碧堂) 류경시(柳敬時, 1666~1737)와 강원계사(江院溪社)를 맺고 강학하면서 후학을 양성하였다. 1741년 70세에 영양(英陽) 석문(石門)으로 이거하고 그 뒤 영양 야성(野城) 지원(芝院)으로, 진보(眞寶) 송강(松江)으로, 금단동(金丹洞)으로, 길현(吉縣) 모산(茅山)으로 이거하였다.

1757년 86세에 수직(壽職)으로 첨지중추부사가 되었다. 1759년 88세 5월 10일에 졸하여 8월에 학가산(鶴駕山) 남쪽 기슭에 안장되었다.

공은 평소 시(詩) 짓기를 좋아하지 않았고 지은 시(詩)마저도 바로 없애버려 대부분 수습되지 못하였다. 이를 손자 권범초(權範祖, 1711~1791)가 대략 수록해 두었으나 편차가 차례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다. 공은 만년에 이렇게 수습된 시고를 〈담타시고(談唾詩稿)〉라 이름 붙이고, 1755년에 소지(小識)까지 지어 가장(家藏)하였다.

공의 시문(詩文)은 안동의 사립과 후손들이 〈담타시고〉와 〈황원일기(黃猿日記)〉 등의 기타 저술을 수습하여 편차하고, 공의 삼남 권심구(權心揆, 1706~1779)가 권범조를 통해서 1778년에 대산(大山) 이상정(李象靖, 1711~1781)에게서 받은 행장 등을 덧붙여 1822년에 일일재(一一齋) 김시찬(金是瓚, 1754~1831)에게 서문을 받아 목판으로 간행하였다.

본집은 5권 3책으로 되어 있으며, 맨 앞에 목록이 있다. 권1은 시(詩, 150제), 만사(挽辭, 73)이다. 권2는 소(疏, 2), 서(書, 39)이다. 권3은 잡저(雜著, 11)이다. 권4는 서(序, 1), 지법(識跋, 3), 잠(箴, 5), 상량문(上樑文, 1), 축문(祝文, 9), 제문(祭文, 20), 애사(哀辭, 7), 묘표(墓表, 3), 행장(行狀, 3)이다. 권5는 부록으로 만사(輓詞, 5), 제문(15), 그리고 이상정(李象靖)이 1778년에 지은 행장이 실려 있다.

다음은 포헌공이, 유회당(有懷堂) 권이진(權以鎭,

## 포헌집(逋軒集)

1668~1734) 공이 안동부사(安東府使)로 부임하여 능동(陵洞) 시조 태사공 묘소를 참배하고 능동재사(陵洞齋)에서 지은 시를 차운한 것이다.

### 古墓心香一炷清(고묘심향일주청)

오래된 묘소에 정성들여 맑은 향 피우고 나자  
已教齋宿致明誠(이교재숙치명성)  
제사에서 목욕머 밝은 정성 다하라고 하였네  
高靈悅物精禋享(고령환물정인향)  
신령께선 이승무레 제사를 음향하시니 뜻하고  
宗族歡欣盡錦榮(종족환흔주금영)  
친족들은 공이 안동부사로 오신 것을 기뻐하네  
福酒醉人恩似海(복주취인은사해)  
음복주가 우리를 취하게 하니 은혜가 바다 같고  
瓊華照席價論城(경화조석가론성)  
훌륭한 시가 자리 비추니 명성이 도성을 논하네  
明年此事修脩飾(명년차사수수회)  
내년의 이 향사는 더욱더 잘 차리고 꾸며지리니  
特地風流萬古情(특지풍류만고정)  
특히 이곳 멋진 풍취가 오래도록 정다우리라  
吾祖動高祚永清(오조훈고조영청)  
우리 시조님 업적 우뚝하여 맑은 복이 영원하니  
親親百代遠含誠(친친백대원함성)  
오래도록 친하고 친하여 멀리 정성 간직하리라  
使君寂寂蟬聯胃(사군취시선련주)  
부사공께서는 대대로 벼슬한 집안 주손이시고  
文彩仍兼奕奕榮(문채영겸영영세영)  
문장을 겸비했으니 여러 세대에 영화로웠네  
霜露蘋蘩齋廳事(상로빈번궁제사)  
서리와 이슬 내리 제수 장만하여 향사 올렸고  
龜龍藻鏡貴佳城(귀룡조달분가성)  
신도비엔 거북과 용을 새기고 묘소도 단장했네  
公歸無遽終終誓(공귀무거종종연)  
공께서 급히 떠나지 않고 끝까지 칭찬해주어  
慰我宗人愛敬情(위어종인애대정)  
종인들을 위로하며 사랑에다 정을 실어주셨네

이 시(詩)에 앞서 다음과 같은 서문(序文)이 있어 당시 상황을 자세히 알 수 있겠다.  
시조(始祖) 태사공께서는 안동(安東) 한 고을에 큰 은택을 입혔기에 나라에서 백세(百世)토록 식읍(食邑)을 내렸다. 공께서는 복록(福祿)을 기르고 흐르게 하여 자손이 천역(千億)이나 되며, 이름나고 지위 높은 벼슬아치들이 앞뒤를 이었다. 그러나 조선(朝鮮)이 건국된 이래로 공의 후손 중에서 이곳 안동(安東)에 사또로 부임(赴任)해온 분은 넷을 넘지 못하니 이는 출세하여 고향에 돌아오는 것이 그만큼 어렵기 때문이다.  
우리 사또께서는 영남 고을을 세 번을 맡고서 비로



## 안동권씨 서울산악회 역사탐방

서울산악회(회장 권영복)는 10월 15일 셋째 주 일요일 아침 7시 30분 사당역 6번 출구에 집결하여 현대관광버스를 타고 10시 반 경 영월 청령포(淸陵浦, 단종대왕의 유배지) 나무에 도착하였다.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영흥리 산133-1번지에 있는 조선 제6대 왕 단종의 무덤인 장릉(莊陵, 단종대왕릉, 사적 195호)을 가기 위해서는 나룻배를 타야 했다. 일행은 나룻배에 승선하여 동강을 건넜다. 단종대왕이 노산군으로 강봉(降封)되어 유배생활을 했던 청령포에는 노산군이 한양을 그리워하며 쌓아 놓은 돌탑과 정선왕후를 그리워하는 망향탑이 자리하고 있어 애절한 사연들을 전하고 있는 듯했다. 노산군의 유배생활을 보고 듣고 자란 소나무 관음송(觀音松)도 지나간 역사를 이야기해주는 것 같아 찜찜한 기쁨은 어쩔 수 없었다.

특히 단종의 어머니 안동권씨(권전權尊의 딸 권순임權順任, 부정공파 17世)라서 그런지 더욱 역사에 비감이 느껴지는 듯하다.

일행은 정릉으로 이동하여 엄숙한 마음으로 참배를 마쳤다. 단종은 조선 제6대 왕으로 즉위(1452)

한다. 그러나 3년 뒤 수양대군의 계유정난(癸酉靖難, 1453)으로 인해 상왕으로 쫓겨나고 성삼문 박팽년 등 사육신이 단종 복위를 시도하다 실패하자 노산군으로 신분이 낮아져 영월 청령포로 유배당하고 만다. 여섯째 삼촌 금성대군의 단종복위운동마저 발각되고 노산군은 세조에 의해 살해된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선뜻 나서서 노산군의 시신을 거두어 주지 않았다. 자칫 잘못하면 역적으로 몰릴까 두려운 엄혹한 시국이었다. 그때 영월 호장이었던 엄흥도(嚴興道, 생몰 미상)가 일가친척 등 주변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신한 일을 하다가 화를 당하더라도 내가 달게 받겠노라"(위선피화爲善被禍 오소감심吾所甘心) 하며 목숨을 걸고 노산군의 시신을 수습하여 국하고 관을 갖추어 암장했다. 장례를 마친 엄흥도는 깊은 탄식을 하며 아들을 데리고 어디론가 떠나버렸다 한다. 그의 소식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세월이 흘러 세조가 죽은 후에서야 아들만이 쓸쓸히 고향으로 돌아왔다. 엄흥도도 이미 세상을 등진 후였다. 일행은 이런 엄흥도의 충절을 기리는 정려각(旌閭閣)과 돌보는 사람이 없



어 오랫동안 알 수 없었던 노산군 묘를 1541년(중종 36) 현몽으로 찾은 영월군수 박충원(朴忠元)의 비각도 둘러보았다.

박충원은 "임백령(林百齡)에게 마음을 받아 영월군수로 쫓겨났다. 영월에 요사스런 일이 발생하여 여러 명의 관리가 갑자기 죽는 일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노산군(魯山君)의 빌미라고 하였다. 그러자 충원이 제문(祭文)을 지어 묘소에 제사를 올렸는데 그 제문에 '왕실의 원자로서 어린시 임금이었네. 청산의 작은 무덤 만고의 쓸쓸한 혼이로다.'(왕실지주왕

室之冑, 유종지군幼沖之君 임편청산一片靑山, 만고고혼萬古孤魂) 하였다. 그 뒤로 이 제문을 축문으로 사용하였다. 충원이 6년 동안 군수로 있었으나 끝내 탈이 없었고 요사스런 말도 사라졌는데 사람들이 이걸로 인하여 그를 칭송하였다."(선조수정실록 15권, 선조 14년 2월 1일, 박충원 졸기) 한다.

세상을 떠난 지 241년이 되는 1698년(숙종24)에 노산군은 왕으로 복위되고 묘호는 단종(端宗)으로, 능의 이름은 장릉(莊陵)이라 하였다.

일행은 역사탐방을 마치고 사전에 예약한 영월의

소 우리 고을 안동의 부사(府使)로 오셨으니 또한 그 사이에 운수(運數)가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 종인(宗人)들은 모두 눈을 닦고 바라보았는데 공께서는 부임하자마자 제수(祭需)를 갖추어 경건하게 묘소를 참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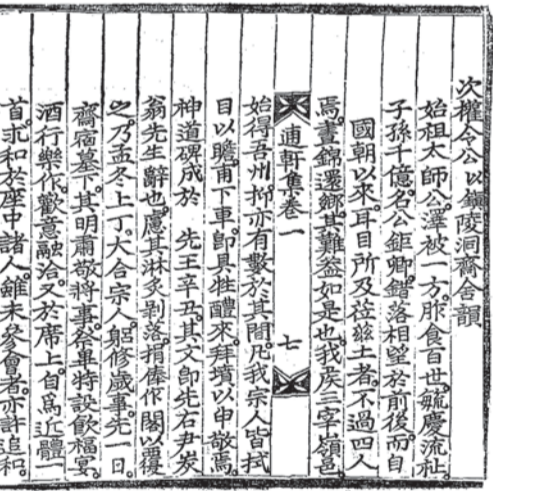
신도비(神道碑)는 현종(顯宗) 2년 신축년[1661]에 안공되었으며 비문은 돌아가신 한성우윤(漢城右尹) 탄옹(炭翁) 권시(權嗣, 1604~1672)선생이 지었다. 비석이 비에 쪼고 햇볕에 타서 글자가 깎이고 떨어져나갈 것을 염려하여 녹봉(祿俸)을 내어 비각(碑閣)을 지어 비석을 덮었다.

음력 10월 상정일(上丁日)에 종인(宗人)들이 많이 모였다. 공께서 몸소 묘사를 봉행(奉行)하셨다. 이보다 하루 앞서 묘소아래에서 재숙(齋宿)하고 날이 밝아지자 엄숙하고 공경스럽게 제사지내는 일을 주관하셨다. 제사가 끝나고 특별히 음복연(飲福宴)을 여니 술잔이 들고 음악이 연주되어 서로 기쁜 마음으로 어울려 화합(和合)하였다. 사또께서 또 자리에서 스스로 근체시(近體詩) 한 수(首)를 지어 좌중(座中)의 여러 종인들에게 화운(和韻)하기를 요청하셨다. 비록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자라도 나중에 화운하도록 허락하여 뒷날 체면(體面)이 서게 하고 또 문중(門中)의 고사(故事)에 대비하라고 하시니 그 뜻이 매우 성대하였다.

이에 앞서 일가친척이 되는 사또가 제사에 오심에 따라 제사를 더욱 숭상하는 마음은 모두들 갖게 되었으나 시집(詩集)을 만들었다는 소식은 아직 듣지 못하고 있다. 우리 종중(宗中)의 문헌(文獻)이 거절고 기록에 빠져 그렇게 된 것이 아닌지 알 수 없다. 임금의 사랑을 받는 인자(仁慈)하신 사또께서 훌륭한 자취를 이 고을에 남기도록 하신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닌 것 같다. 또한 사또의 정성과 사랑이 아직도 이와 같이 문장(文章)에 남기고 있으니 이는 옛 현인(賢人)에게 많은 것을 요구한 것이 아니다.

아! 아름답도다. 나는 9월 말에 남쪽 지방에 일이 있어 편지를 가지고 공께서 계시는 관아(官衙)를 찾아가 보았다. 사또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리라. 돌아가는 때는 묘사(墓祀) 때가 좋을 것이다"하셨다. 나는 삼가 응낙(應諾)하고 물러났다. 지나간 일이 많이 틀어져 소한(小寒)을 지나고 나서야 집으로 돌아왔다. 받들어 두루 힘쓰지도 못하였으니 몸소 성대한 일을 보았으나 오싹하여 더욱 두려웠으며 연달아 탄식하였다.

이에 삼가 운자(韻字)에 따라 율시(律詩) 두 수(首)를 지어 작은 정성으로 보답한다. 시(詩)를 제대로 배우지 못해 몹시 속되고 천하며, 골목에서나 부를 노래가 주군(州郡)에까지 이르는 것도 옛날 일이다. 이 시(詩)의 옳고 그름은 뒷자리에 계신 분들의 채택에 달렸을 따름이니 어찌 마음 아파하겠는가!



맛집인 버섯 두부전골에서 화목한 분위기로 점심식사하고 약주를 곁들여 식사를 마쳤다.

이어서 동강이 굽이굽이 흘러 돌아 한반도 형상을 한 영월의 명소인 명산은 2시간 정도 삼삼오오 답소를 나누어가면서 산행을 한 후 즐거운 마음으로 오후 4시경 상경길에 올라 오후 7시에 서울 사당동에 도착했다. 다음 달 산행 때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기로 약속하고 역사탐방이자 원정산행을 모두 마쳤다.

권영복 서울산악회 회장